

2016년 5월 후원회원 후원금 시용 내역서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20,747,409	전월이월금	2,746,189
지 로	3,003,570	우리은행	3,896,850
국민은행	4,527,000	하나은행	1,011,000
조흥은행	105,000	신한은행	1,210,000
외환은행	387,500	제일은행	195,000
농 협	1,310,000	기업은행	265,000
우 체 국	60,000	지정기탁	390,000
		교구보조	1,640,300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11,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등	
	베다니아의 집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소 계	13,4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70,000	장기수선총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390,000	산재, 진폐환자가정 생활비	
지 출 총 액	18,885,000	잔액(이월금)	1,862,409	

<쉼터 이용 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25	0	0	25
베다니아의 집	9	0	2	7
벗들의 집	11	0	0	11
사랑의 집	9	0	1	8
마고네공부방	10	0	0	10



곧 있으면 교황주일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처럼 저도 현재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그 전까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제일 존경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선종하셨을 때, 공중과 TV에서 교황님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병으로 쇠약해져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교황님이 바티칸 광장에 모인 많은 신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시도했던 것은 세상과의 대화였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지혜를 믿습니다."

교황으로서의 삶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자, 당신께서 해 오신 그 일들을 이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하도록 부탁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두려워할 때, 강한 악령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확고하게, 그렇지만 따뜻하게 제자들을 격려해주시지요.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며 말입니다.

예전에 동기 신부들과 함께 명동 길을 걷다가 여러 청년들이 길에 쪽 앉아서 사주, 타로 등 점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내 변화가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

는 이런 광경 때문에 답답했던지 한 동기 신부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점을 볼까?" 하며 투덜거리듯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운 거겠지. 자기 앞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 뭐. 그래서 점을 보는 거 아닐까?"

더 따지고 들자면야 청년들의 삶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까지 짚고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심리, 즉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얼른 손쉽게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의 알팍한 심리가 드러나는 모습이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무엇인가 두려운 것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심지어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려고 미사 때마다 매번 빵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야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겠지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언제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과 용기로써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에서 힘을 주고 계시니까요.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장경민 시메온 신부**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7월 후원미사는 18일, 8월 후원미사는 22일, 8월 후원미사는 셋째 주 월요일(15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넷째 주 월요일(22일)에 봉헌합니다. 9월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남미공동체 소식

지난 4월 16일 에콰도르에 규모 7.8의 대규모 지진이 강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650여 명의 사망자, 8400여 명의 부상자, 2만 5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국가공동체인 남미공동체에서 명동성당 신부님의 도움으로 바자회(5월 29일)에 참석하여 지진피해 성금 모금을 했습니다. 에콰도르 전통 춤을 공연하고 남미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여 바자회 수익금으로 3,286,000원이 모금되어 에콰도르 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필리핀공동체 소식

필리핀공동체는 매년 6월 12일에 독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필리핀 공동체와 필리핀 대사관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지난 12일에 반포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사(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와 각 지역별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 공동 미사집전)와 전통 의상 행진과 공연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3,000여명의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참여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4.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미술관 견학



단체활동수업

5. 이주사목위원회 소식지 변경

2002년부터 발행한 이주사목위원회 소식지 '두손모임'이 2016년 7월부터 '좋은이웃'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송해드립니다. 루카복음서 10장 33-37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우리도 이주민에 대한 환대와 사랑을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소식지 명칭을 바꿨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